

농촌 노인의 거주지 만족과 관련변인

고순철* · 이재룡** · 최미용***

*협성대학교 지역개발학과 교수

**경기도농업기술원 기술보급국장

***경기도농업기술원 소득기술과

Residential Satisfaction of the Rural Elderly and Its Related Variables

Soonchul Ko* · Lee, Jae Ruong** · Mi Yong Choi***

*Professor, Dep't of Regional Dev., Hyupsung Univ.

**Director of Extension Service Bureau, Gyeonggi Provincial Ag. Research
& Extension Services

***Home Economics Specialist, Gyeonggi Provincial Ag. Research
& Extension Services

Abstract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were to explore rural elderly's perception on rural area as a proper place to live for the elders and to find out their residential satisfaction and its related variables. The data were gathered through the questionnaire survey from 241 rural elderly over 70 aged living in Gyeonggi province during July 2005.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 1) Those who are men, having experience living in urban area, and favorable perception to social relation with other residences prefer the rural area to urban area as living place for the elderly ;
- 2) Those who are subjectively perceived healthy and favorable perception to social relation with other residences tend to be in higher residential satisfaction than other groups ;
- 3) Such variables as age, educational background, living term in community and urban area were not significant to rural elderly's perception on rural area as a proper place to live for the elders and residential satisfaction;
- 4) Such variables as identification as community residences, people-oriented personality, sex and having experience living in urban area explained 26.4% of variance in rural elderly's perception on rural area as a proper place to live for the elders ;
- 5) Such three variables as identification as community residences, relationship with the primary group and age explained 55.2% of variances in residential satisfaction;
- 6) In shortly, the most influential factor to rural elderly's perception on rural area as a proper place to live for the elder and residential satisfaction was their identification as community residences.

Key words: residential satisfaction, rural elderly

I. 서론

우리나라의 2005년 현재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9.23%를 차지하고 있어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전체 인구 중 65세이상 노인의 비율이 14%일 때를 고령사회, 20% 이상일 때를 초고령사회라 하는데, 2005년 인구센서스 결과 농촌지역은 이미 초 고령사회로 진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동부는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이 7.16%이지만, 읍·면부는 25.81%에 도달한 것으로 추계되고 있다.

농촌 지역의 노인인구 비율 증가는 농촌지역 성장률의 둔화, 노인부양비의 증대와 이에 따른 노인복지 수요의 과부하 등 많은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 농촌 노령화와 관련해서는 이미 학문분야별로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농업의 생산력과 농촌발전의 지속성과 관련된 농산업의 측면, 농촌노인의 장수요인이나 건강상태 및 영양섭취 등에 대한 보건의료적인 측면, 노인의 자아존중감 등에 대한 심리적 측면, 사회적 지지나 생활 만족도 등과 같은 사회적 측면, 서비스 전달이나 공동시설의 이용 등에 대한 복지적 측면 등 다양한 관점에서 연구되어 왔다. 또한 농촌노령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농촌진흥청을 통한 노인생활지도사업, 건강관리실 사업, 농촌건강 장수마을 사업 등 정책적 노력이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의 대부분은 농촌 노인들의 개인적인 인구학적 특성과 관련하여 노인들의 삶의 한 측면을 연구한 것이 일반적이다. 환언하면, 농촌노인들의 삶의 현상을 개인적인 변인에 따른 차이에 초점을 두어 분석함으로써, 지역사회 주민과의 관계이나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가 삶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고려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고 본다. 이런 면에서 과연 농촌 노인들은 농촌을 노후생활지로서 적당하다고 판단하는지 그리고 농촌노인들은 현재 살고

있는 거주지에 대한 만족을 하는지, 그렇다면 어떤 요인이 그러한 것에 영향을 주는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이 연구는 노후 생활지로서의 농촌의 적절성에 대한 농촌노인의 인식과 농촌노인들의 주거 만족에 관련된 요인을 찾고자 하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II. 이론적 배경

1. 거주지 만족의 개념

거주지 만족은 지리적 공간에서의 사회적 관계를 의미하는 거주지와 만족의 두 개념이 결합된 용어이다. 일반적인 의미로 볼 때 거주지는 지역사회의 개념과 사실상 다름이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역사회의 개념이 갖는 다의적 측면으로 인해 지역사회를 분류하는 유목이 자의적인 설정에 따라 그 범위가 다양해질 수 있기 때문에, Rossi(1972:93-97)는 특정한 공간적 영역을 배경으로 한 사회적 단위로서의 지역사회를 연구할 때는 거주지 지역성(residential locality)이란 개념을 사용하는 것이 유용하다고 제안한다. 그는 거주지 지역성의 특징을 거주지역내의 ① 단결(solidarity), ② 통합(integration), ③ 정치적 자율성(political autonomy)의 세 가지로 들고 있다. 그는 단결을 주민들이 다른 사람에 대하여 어느 정도 유사하게 자신을 파악하고 있는가의 정도로 개념화하고, 그 측정은 ① 집합체로서의 지역사회 인식, ② 집합체로서의 거주 지역사회에 대한 정의적 관여, ③ 지역사회 사건에 대한 흥미와 관여, ④ 거주 지역의 사회적 분위기, ⑤ 준거집단으로서의 거주 지역사회, ⑥ 지역사회내의 차별화와 갈등의 측면에서 본 단결적 단결, ⑦ 거주 지역사회에 대한 애착이란 측면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제시한다. 주민들이 가시적, 비가시적 교환에 의해 연결된 정도로 개념화되는 통합은 두 가지의 연결고리

에 의해 범주화될 수 있는데, 하나는 정의적 특성으로서 이는 한 문화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것에 대하여 느끼는 것이며 선택의 여지가 없는 부분이 될 수도 있다(예컨대, 종교, 이웃과 부락과의 관계 등). 다른 하나는 사람들의 흥미에 의존하는 것으로서, 이는 좀 더 개인적인 선택에 기초하는 것이다 (예컨대, 타인과의 관계, 상업적 관계 등)(Rubin 과 Rubin, 1986:36). 그리고 집합적 결정에 대한 인준의 정도로 개념화하고 있는 정치적 자율성에 대해 Rossi는 의사결정 기관과 서비스 제공기관의 측면에서 분석되어야 함을 지적하고, 거주지 지역성의 특징을 구성하는 요인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이용 가능한 지표들 예시, 나열하고 있다.

한편, 주민들이 그들이 살고 있는 거주지 환경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는 가는 지역사회 삶의 질과 관련이 있다. 그런데 삶의 질의 개념은 그 개념이 내포하고 있는 포괄성으로 인하여 조작적인 개념이 동원되고 있는데, 그것은 객관적 상황에 대한 측정만으로는 인간의 감정이나 느낌을 반영하는 질적 측면을 파악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인간은 누구나 사회 환경 속에서 물리적, 심리적 제 조건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있으며, 그 욕구의 충족여부가 만족이나 행복 등과 같은 추상적 표현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러한 열망, 기대, 행복, 만족 등과 같은 추상적 용어로 표현되는 주관적 삶의 질 측정은 대체로 만족이란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데(Schneider, 1976: 300; Miles, 1985: 68), 그것은 만족감을 언급하는 것이 행복이란 개념보다 그 준거가 보다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행복이 나타내지 못하는 기대감 또는 열정의 준거기준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MacRae, 1985:191).

또한 Deseran(1978)은 만족은 개인들이 만족감과 관련된 사실적 지식, 특정 상황의 구조 속에서 이루어지는 평가 및 개인의 흥미, 목표, 환경과 사회적 구조에 의해 영향을 받는 상화의 적절성이 작용하므로, 지역사회가 변화되더

라도 만족에 내포된 본질적 특성이 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역사회 만족은 진행 중인 과정에 대한 상호작용으로 간주하여 안정되고 의미가 있는 측정이 된다고 논의한다.

따라서 객관적 속성으로서의 지역사회의 변화와 이에 대한 주민들의 만족도는 하나의 함수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주민들이 어떠한 지역사회에 대하여 만족하는 가의 측면은 어떠한 지역사회가 좋은 곳인가 하는 판단과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주민들은 지역사회가 얼마나 좋은 가를 생각하면서 자신의 주관적 의견과 감정에 기초하여 스스로의 이미지를 개발하게 된다. 즉, Fellin(1987:11-12)이 지적한 바와 같은 일차집단에 대한 기회, 주민들의 지역사회 애착정도, 심각한 사회문제의 부재, 고착화되고 기능적이며 안정된 이웃의 존재, 교육과 취업의 기회 등에 의한 주관적 의견과 감정이 타인과의 관계 및 지역사회내의 (비)정규조직에 참여하는 데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면을 고려할 때 거주지 또는 지역사회 만족은 크게 보아서는 삶의 질의 주요한 한 측면이며(Rogers, 1982:147; Molnar, et al, 1979: 401), 지역사회의 객관적 환경조건 및 삶의 형성에 대한 주민의 주관적 인식 모두에 적용 가능한 사회측정으로서의(Ladewig과 MacCan, 1980: 111) 특성을 갖는다. 요약컨대, 지역사회 만족도는 삶의 질의 주요한 한 부분이지만, 그 측정의 단위를 생활의 장인 지역사회에 초점을 두는 연구영역이라 하겠다. 따라서 지역사회 만족도 연구에서는 어떠한 지역사회에 대하여 주민들이 만족 또는 불만족을 느끼고 있으며, 그러한 감정상태 하에서 지역사회에 거주하며 생활하도록 하는 요인이 무엇인가를 탐색하는 것이 그 핵심내용이 될 것이다.

2. 거주지 만족에 대한 연구 고찰

1) 외국의 연구사례

지역사회 만족도에 대한 연구는 특히 미국의 농촌사회학자들에 의해 연구되어 왔는데, 그 기원은 지역사회에 대한 태도를 다룬 Davies (1945)의 연구까지 거슬러 갈 수 있다 (Deseran, 1978:236). Davies는 지역사회 주민들은 그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사회를 의식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만족도는 서로 다를 것이라는 가정 하에 지역사회 주민들의 사회적 성격과 사회 심리적 특성, 지역사회내의 객관적 서비스에 대한 주민의 가치 등으로 구성된 40개의 지역사회 속성에 대한 척도를 개발하여, 지역사회의 크기와 만족도와는 긍정적인 관계가 있음을 발견한 바 있다.

이 후에 미시간 주 농업고등학교 학생들의 이농의사와 지역사회 만족도의 연구(Schulze 등, 1963), 직업과 지역사회 만족도(Jesser, 1963) 및 지위 불위치와 지역사회 만족도 관계(Bauman, 1968) 등이 1960년대에 이루어졌는데, 1960년대까지의 지역사회 만족도 연구는 Davies가 개발한 척도에 크게 의존하여 독립변인과 지역사회 만족도간의 관계를 부분적으로 구명하는 일차원적 분석으로 이루어졌다. 1970년대 이루어진 연구결과는 지역사회 만족도가 다차원적 개념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도시 주민과 농촌주민간의 만족도 영역에 차이가 있음을 구명한 Johnson과 Knop의 연구(1970), 지역사회 만족도 개념을 지역사회 서비스의 질적 측면으로 개념화하여 만족도 결정요인을 구명한 Rojeck 등의 연구(1975)와 Maran과 Rodgers(1975)의 연구가 있다. 특히 Rojeck 등의 연구결과는 지역사회의 서비스로 대표되는 객관적 속성과 지역사회 만족도와의 관계는 0.30정도로 나타나 설명력이 낮음을 보여주었으며, Maran과 Rodgers의 연구결과는 지역사회 서비스로 대표되는 환경의 속성이 지역

사회 만족도를 설명할 수는 있지만, 그것은 주관적 경험에 좌우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Goudy(1977)는 권력의 배분, 시민참여, 지역사회의 관여 등과 같은 사회적 차원에 대한 인지가 지역사회 서비스 적절성의 인지보다 지역사회 만족도에 더 효율적인 예견치가 될 것으로 가설화하여 연구를 시도하였는데, 특히 의사결정이 공유되고, 주민들이 지역사회에 많이 관여할수록 만족도가 더 높아지는 것을 발견함으로써, 지역사회 만족도를 설명할 때 지역사회 서비스와 그 기회보다는 사회적 요인이 더 중요함을 보여주었다. 또한 지역사회 서비스의 적절성(서비스 문제의 심각성)과 주민의 사회적 지위와의 관계를 연구한 Warner와 Burdge의 연구(1979), 지역사회 서비스의 변화모습에 대한 사회적 지위에 따른 인식차를 연구한 Molnar 등(1979)의 연구결과는 사회적 지위에 따른 지역사회 서비스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있지만,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의 변화와 총체적인 지역사회 만족도 변화간의 관계는 낮은 것을 발견하였다.

Miller와 Crader(1979)는 지역사회 만족도를 대인 만족도와 경제적 만족도로 구분하여 이들 만족도 차원에 대한 도시·농촌간의 차이를 검증하였다. 이들의 연구결과, 대인 만족도는 농촌이 도시보다, 경제적 만족도는 도시가 농촌보다 더 높게 나타나 거주지별로 만족도 차원의 차이가 나타났지만, 그 편차를 감안한다면, 지역에 관계없이 대인 만족도가 항상 경제적 만족도 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또한 대인 만족도와 경제적 만족도와의 상관성이 -0.07 로 나타나, 사실상 독립적인 것으로 구명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지역사회 만족도는 지역사회의 사회적 관계가 다른 요인보다는 중요시된다는 Goudy(1977)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지역사회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에 대해 경로분석을 실시한 Ladewig와 MacCann(1980)의 연구결과는 개인적 변인은 지역사회 만족도와

유의관계가 적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또한 농촌 주민의 지역사회 속성과 거주지 선호도를 연구한 Allen 등의 연구(2001)는 지역사회 만족의 개념을 구성하는 지역사회의 사회적 속성, 지역사회 참여와 허용, 지역사회 서비스에 대한 만족을 이주하고자 하는 거주지 규모별 속성과 관련시켜, 새로운 차원에서 지역사회 만족을 접근하였다.

이러한 지역사회 만족에 대한 연구들은 Goudy (1977), Miller 와 Crader(1979), Ladewig와 MacCann(1980) 등과 같은 일부 연구를 제외하고서는 지역사회 만족도의 개념을 지역사회의 객관적 속성에 대한 지역주민의 주관적 반응을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객관적 속성을 구성하고 있는 요인에 대해서는 다소의 차이가 있다. 또한 지역사회 서비스의 차원 이외의 다른 요인을 고려한 연구사례가 극소수이어서 지역사회 주민의 개인적 특성과 지역사회 서비스 외에 지역사회의 사회적 관계 속성의 차이와 관련하여 연구할 때 더욱 의의가 있을 것으로 본다.

2) 국내의 연구사례

지역사회 만족도에 대한 국내의 연구는 사실상 거의 없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지역사회 만족도 개념이 대두된 배경이나, 그 이론적 근거를 감안한다면, 국내의 연구동향은 넓은 의미에서의 삶의 질, 사회지표 연구 내지는 생활만족도 연구와 관련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이유 중의 하나는 사회지표 내지는 삶의 질을 연구한 연구물들이 객관적 속성 및 이에 대한 주관적 인식의 정도를 감안하고 있으며, 이들 통하여 우리나라의 지역사회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한 관련변인을 찾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지역사회 만족도 연구와 직접적인 관계를 가진 연구로서는 김해동(1978)의 연구를 들 수 있

다. 그는 농촌의 10개 생활영역에 대한 만족도에 대하여 일차원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사실상 지역사회 만족도에 대한 국내의 첫 연구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연구에서 그는 특히 새마을 운동의 발전목표로 사용한 부락의 유형구분이 반드시 생활의 향상에 도움을 주는 것은 아니며, 그 내용이 물리적인 환경적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는 잠정적인 결론을 내리고 있어 외국에서의 지역사회 만족도 연구결과와 일치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최경우(1978)와 조성일(1984)의 연구는 동일한 질문지를 이용하여 시차를 두고 다른 지역을 연구한 바 있다. 이들의 연구는 농촌주민의 주관적 복지, 즉 삶의 질 연구와 관련하여 연구하였는데, 전체적인 주관적 복지와 상관이 높은 것은 마을로 나타나 마을이란 지역사회가 농촌주민의 주관적 복지와 중요한 관계가 있음을 밝혔다.

농촌주민의 객관적 삶의 질과 주관적 삶의 질의 관계를 연구한 김동일 등(1982:172)은 특히 농촌주민의 거주 지역에 대한 태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지역사회의 통합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통합척도(village integration scale)와 지역사회에 대한 만족감이나 기대감을 측정하기 위한 거주부락 만족척도(village satisfaction scale)를 사용하였다. 그 결과 농촌주민들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통합정도는 강한 것으로 보고 있으나, 지역사회에 대한 만족도는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들의 연구는 농촌주민의 삶의 질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면서, 거주부락 만족도의 개념을 사용한 의의가 있으나, 그 결과가 만족도 여부에 대한 척도를 구성하고 있는 각 항목별로 분석되어 종합적인 해석이 어렵다는 점과 객관적 요인 및 다른 변인과의 관련성이 함께 분석되지 못하였다는 제약점이 있다.

한편 고순철(1992)은 국내·외 지역사회 만족도 연구에 대한 종합적인 고찰을 통해 제주도 농촌 주민의 지역사회 만족도를 연구하였는데, 농촌주민들의 지역사회 만족도 수준은 지역사

회에 제공되고 있는 행정서비스 또는 그에 대한 이용기회보다 상호작용 측면에서의 주민간의 사회적 관계가 더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볼 때 지역사회 주민들의 개인적 특성은 지역사회 만족도와 유의적인 관계가 낮지만, 지역사회 거주기간, 개인의 사회심리 상태는 지역사회 만족도와 관련이 있는 변인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밝힌 바 있다.

그리고 비록 단일 문항의 차원에서 거주지 만족을 측정하는 것이지만, 우리나라의 사회지표 분석 결과(통계청, 2001; 2004)는 오히려 읍·면부가 동부보다 거주지역에 대한 만족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¹⁾, 도시와 농촌간의 객관적 제 격차가 상존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한다면, 거주지역 만족도는 객관적 실제와는 관계가 낮으며, 오히려 이에 대한 주관적 인식이 더 큰 요인으로 작용함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외에 농촌 노인의 생활만족도 연구(한정란·김수현, 2004; 배진희, 2004; 박광희·한혜경, 2002; 김득희·황경열, 1998; 김정아·김금미, 1997; 송병국, 1987 등)는 부분적으로 거주지 만족과 관련된 변인이 일부 사용되면서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비록 주관적 판단과 인식이 작용하는 만족이란 용어를 사용하여 개인의 삶을 측정한다는 공통점이 있으나, 생활만족도가 주로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한 인식을 중시한다면, 거주지 만족은 지역사회에서의 사회적 관계에 기초하여 분석이 이루어진다는 차이를 갖는다.

1) 통계청의 사회통계조사보고서에 의하면, 2001년도와 2004년도의 거주 지역 만족도는 동부의 경우 만족이 29.5%에서 32.9%로, 보통이 42.2%에서 39.6%로, 불만족의 비율은 28.3%에서 22.6%로 변화되고 있다. 한편, 읍·면부의 경우 만족은 43.0%에서 40.3%로, 보통은 36.9%에서 37.15로, 불만족은 20.1%에서 22.6로 변화하고 있다. 비록 읍·면부의 경우 만족의 비율이 감소하고, 불만족이 높아지고 있으나, 동부에 비해 만족의 비율이 더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국내의 연구동향을 외국의 연구사례와 비교하여 보면, 지역사회 만족도 연구에 대한 실증적 자료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이에 영향을 주는 변인의 구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Ⅲ. 연구절차 및 방법

1. 조사대상 및 조사방법

이 연구의 자료조사는 2005년 7월 4일부터 7월 17일까지 이루어졌다. 조사 대상은 경기도 농촌 지역 중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7% 이상 되는 12개 시·군 중 1개 마을을 농업기술센터의 생활지도사가 임의로 표집하여, 70세 이상 노인 최소 20명 이상을 남녀별로 고루 선별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총 241명이 조사되어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조사 대상 시·군은 평택, 화성, 안성, 여주, 이천, 양주, 양평, 김포, 파주, 포천, 가평, 연천 등 12개 시·군이며, 각 조사지는 생활지도사가 개별 면접을 통해 수집하였다.

2. 조사도구

1) 종속변인

이 연구에 사용된 종속변인은 크게 3개 문항의 점수 합으로 구성된 거주지 만족과 노후생활지로서의 농촌의 우선성을 묻는 두 개이다. 각 문항은 「매우 찬성」에 1점, 「매우 반대」에 5점을 주어 측정하였다.

거주지 만족은 이론적으로 3점 - 15점의 범위를 가지는데, 3개 문항의 평균은 6.66이고, 측정도구로서의 Cronbach 신뢰도 계수(α)는 0.804로 비교적 높은 신뢰도 수준을 보였다.

노후 생활지로서의 농촌에 대한 의견은 「노후를 지내는데 도시보다 농촌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한다」는 단일 문항으로 측정하였는데, 1-5

점의 점수 범위에서 평균 1.71로 나타나 농촌이 을 보이고 있다.
 노후 생활지로 더 적당하다는데 긍정적인 의견

〈표 1〉 종속변인의 통계치

종속변인	구 분	평 균	표준 편차	신뢰도 계수(α)
거주지 만족	이 지역사회에 속해 있기 때문에 혜택을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6.66	2.06	0.804
	내가 살고 있는 동네는 살기에 더 없이 좋은 곳이다.			
	나는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 대해 다른 사람에게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다.			
노후생활지	노후를 지내는데 도시보다 농촌이 더 적당하다고 생각한다.	1.71	0.77	-

2) 독립변인

독립변인은 성별, 연령, 학력, 동거가족 유형, 지역사회 거주기간, 도시생활 경험 여부 및 도시 거주기간과 같은 인구학적 변인과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건강상태, 인간관계의 우선성 그리고 지역사회에서의 사회적 관계 속성으로 설정하였다.

성별은 ①남자, ②여자로 구분하였으며, 연령은 ① 70-74세, ② 75-79세, ③ 80-84세, ④ 85세 이상의 4단계로, 학력은 ① 초등학교 졸, ② 중학교 졸, ③ 고등학교 졸, ④ 전문대 이상 졸의 4단계로, 동거가족 유형은 ① 혼자 거주, ② 배우자와 거주, ③ 배우자 없이 자녀와 거주, ④ 부부와 자녀거주의 4단계로 구분하였다. 또한 지역사회 거주기간은 ① 15년 이하, ② 16-30년, ③ 31-45년, ④ 46-60년, ⑤ 60년 이상의 5단계로, 도시생활 경험여부는 ① 경험 있음, ② 경험 없음으로, 도시 거주기간은 도시생활 경험자를 ① 1-15년, ② 16-30년, ③ 31년 이상의 3단계로,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건강상태는 ① 건강한 편, ② 보통, ③ 건강하지 못한 편으로 구분하였다.

한편 인간관계의 우선성은 「나는 어떤 일을 해내는 것보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나는 사람들과의 관계보다 풍족하게 지내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내가 살고 있는 환경보다는 사람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라는 3개 문항에 대한 점수의 합으로 측정하였는데, 두 번째 문항에 대해서는 점수변환을 거쳐, 인간 관계를 우선하는데 「매우 찬성」에 1점, 「매우 반대」에 5점을 주는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에서의 사회적 관계 속성은 총 21개의 문항에 대해 직각(varimax) 회전방식으로 eigen 값을 1.0이상으로 하여 요인 분석을 하여 변인 군을 추출하였다. 21개 문항 역시 「매우 찬성」에 1점, 「매우 반대」에 5점을 부여하는 5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부정문으로 물어본 문항에 대해서는 점수변환을 하였다.

요인분석 결과 전체 6개의 요인이 추출되었는데, 요인 적재치(factor loadings) 0.5 이상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전체 21개 변인 중 23번 변인 1개만 요인으로 적재되지 않았으며, 21개 변인이 전체 변량의 약 67.03%를 설명하고 있었다.

<표 2> 요인별 구성 변인 및 통계적 특성

요인	변인	요인 적재치	문항수	평균	표준 편차	α 계수
I	살아오는 동안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을 대부분 이루었다고 생각한다.	.731	5	2.76	0.63	0.807
	이 동네에는 내가 할 일은 아직도 많다고 생각한다.	.557				
	나는 아직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은 이루어내야만 직성이 풀린다.	.748				
	전체적으로 내 인생은 성공적이라고 생각한다.	.730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나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575				
II	나와 내 가족과의 관계는 우호적이라 할 수 있다.	.811	5	2.27	0.62	0.823
	나와 내 친척들과의 관계는 우호적이라 할 수 있다.	.736				
	이 지역사회에서는 사람들이 서로 의지할 수 있다.	.511				
	내가 살아오는 동안 나의 가정생활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532				
	현재 나의 가정생활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579				
III	이 지역사회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잘 알고 지내는 편이다.	.659	3	2.44	0.70	0.815
	이 동네 사람들은 공동의 운명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768				
	나는 지역사회의 일원이라는 느낌이 든다.	.785				
IV	내가 살아오는 동안 나는 주변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845	2	2.14	0.70	0.859
	지금도 나는 주변의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있다고 생각한다.	.827				
V	나는 가족과 있을 때보다 친구와 있을 때가 더 편하다*.	-.718	3	2.66	0.48	-0.108
	내가 대화를 하고 싶을 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을 이 지역사회에서 당장 찾을 수 있다.	.705				
	우리 동네에는 정말로 나를 염려해주는 가족 이상의 사람들이 있다.	.587				
VI	나에게는 자랑할 만한 것이 별로 없는 것 같다*.	.815	3	2.97	0.62	0.383
	나는 내가 가끔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느껴질 때가 있다*.	.631				

* 표는 점수를 변화한 문항임.

〈표 2〉에서 보듯이, 요인 I 은 5개의 변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신뢰도 계수가 0.807로 높게 나왔으며, 대체적으로 개인적인 성취감과 자부심과 관련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어 「개인적 자부심」으로 명명하였다. 대체로 가족, 친척, 가정생활과 관련된 5개 문항으로 구성된 요인 II 의 신뢰도 계수는 0.823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를 「1차 집단 관계」로 명명하였다. 요인 III 은 공동체 인식과 관계된 3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뢰도 계수는 0.815이다. 따라서 요인 III은 「공동체 인식」으로 명명할 수 있으며, 요인 IV는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신뢰성과 관계된 2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신뢰도 계수는 0.859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어, 이를 「타인과의 신뢰적 관계」

로 명명하였다. 한편 요인 V 와 요인 VI은 각각 유사한 변인이 요인으로 분류되었지만, 측정척도로서의 신뢰도 계수가 낮아 독립변인으로서 사용하기에는 부적절하여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IV. 분석결과 및 해석

1. 응답자의 일반적 배경

응답자의 일반적 배경은 〈표 3〉과 같다. 응답자의 성별은 남자와 여자가 거의 비슷하며, 연령은 70-74세 집단 그리고 학력은 초등학교 졸업 이하가 가장 많았다. 현재 동거하는 가족 유형은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는 비율이 가장 많았으며, 혼자 거주하는 비율도 15.2% 정도이다.

〈표 3〉 응답자의 일반적 배경

변 인	구 분	빈 도	백분율	변 인	구 분	빈 도	백분율
성 별	남 자	124	51.5	동거가족 유 형	혼자 거주	36	15.2
	여 자	117	48.5		배우자와 거주	124	52.3
	소 계	241	100.0		배우자없이 자녀와	41	17.3
연 령	70-74세	162	67.8		부부와 자녀거주	36	15.2
	75-79세	51	21.3		소 계	237	100.0
	80-84세	15	6.3	주관적 건강상태	건강한 편	118	49.0
	85세 이상	11	4.6		보 통	36	14.9
	소 계	239	100.0		건강하지 못함	87	36.1
학 력	초등 이하	191	79.3		소 계	241	100.0
	중 졸	21	8.7	지역사회 거주기간	15년 이하	33	13.7
	고 졸	24	10.0		16-30년	24	10.0
	전문대졸이상	5	2.1		31-45년	28	11.6
	소 계	241	100.0		46-60년	71	29.5
도시생활 경험여부	경험 있음	87	36.1		61년 이상	85	35.3
	경험 없음	154	63.9	소 계	241	100.0	
	도시생활 기 간	소 계	241	100.0	1-15년 이하	50	57.5
		16-30년	15	17.2	31년 이상	22	25.3
31년 이상		22	25.3	소 계	87	100.0	
소 계		87	100.0				

거주기간과 도시생활 거주 기간은 개방형으로 응답한 결과에 기초하여 유무를 나누었는데, 특히 도시생활 거주기간은 경험 있음과 없음으로 나누어 도시생활 경험이라는 명목변인과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기간으로 나누어 도시 거주기간의 두 변인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응답자의 76.3%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사회에서 30년 이상 살고 있으며, 63.9%는 도시에서 산 경험이 없었다. 70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하였지만, 이들이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건강상태는 비교적 건강한 것으로 인지하고 있다.

2. 변인간 상관관계

이 연구의 분석에 사용된 변인간 상관관계는 <표 4>와 같다. 전체적으로 변인간 상관계수는 비교적 낮게 나타나고 있다. 종속변인 거주지

만족과 상관관계가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는 독립변인은 지역사회 거주기간, 주관적 건강상태, 개인적 자부심, 1차 집단 관계, 공동체 인식, 타인과의 신뢰적 관계인데, 지역사회 거주기간과 주관적 건강상태 변인은 거주지 만족과 부적 관계를 보이고 있다.

다른 하나의 종속변인, 즉 노후생활지로서의 농촌우선성과 상관관계가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는 독립변인은 성별, 도시생활 경험, 개인적 자부심, 1차 집단 관계, 공동체 인식, 타인과의 신뢰적 관계인데, 도시생활 경험이 있을수록 노후생활지로 농촌이 더 적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두 개의 종속변인간 상관계수는 0.40으로서 비교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거주지 만족이 높을수록 농촌을 노후생활지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4> 변인간 상관계수

	A	B	C	D	E	F	G	H	I	J	K	L	M	N
A	-	.090	-.389**	-.105	-.114	-.229**	.164*	.001	.155*	.066	.113	.082	.203**	.036
B		-	-.140*	.022	.138*	-.108	.098	.041	.195**	.135**	.070	.111	.030	-.013
C			-	-.048	-.090	.334**	-.185**	-.084	-.180**	-.109	-.109	-.103	-.041	-.086
D				-	.108	-.125	.021	-.101	-.016	.075	.011	.092	.095	.092
E					-	-.361**	.157*	-.103	-.045	-.008	-.156*	.042	-.090	-.149*
F						-	-.017	.038	-.039	-.040	.021	.020	.131*	.037
G							-	.044	.315**	.190**	.208**	.258**	.101	.170**
H								-	.155*	.000	.048	.006	.006	.008
I									-	.559**	.584**	.434**	.313**	.442**
J										-	.592**	.522**	.289**	.653**
K											-	.388**	.410**	.660**
L												-	.339**	.405**
M													-	.400**
N														-

A: 성별(남 0; 여 1)

B: 연령

C: 학력

D: 동거가족 유형

E: 지역사회 거주기간

F: 도시생활 경험(없음 0; 있음1)

G: 주관적 건강상태

H: 인간관계 우선성

I: 요인 I

J: 요인 II

K: 요인 III

L: 요인 IV

M: 노후생활의 농촌 우선성

N: 거주지만족

3. 독립변인별 사회심리학적 특성 분석

주지 만족에 대해서는 유의차를 발견할 수 없었다.

1) 성 별

두 개의 종속변인에 대해 성별 평균 차이를 분석한 결과, 노후생활지로서의 농촌 선호에 대해서는 1% 수준에서의 유의차가 있었으나, 거

주지 만족에 대해서는 유의차를 발견할 수 없었다.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남녀 모두 노후 생활지로서 농촌이 도시보다 더 적당하는 응답을 보이고 있으나, 남자가 여자보다 농촌이 노후생활지로 더 적당하다고 보고 있다.

<표 5> 성별 종속변인에 대한 T 분석

	구 분	사례수	평 균	표준편차	자유도	t 값
노후생활지로서의 농촌선호	남 자	120	1.56	0.632	232	-3.160**
	여 자	114	1.87	0.857		
거주지만족	남 자	121	6.59	2.019	235	-0.545
	여 자	116	6.73	2.107		

P** < 0.01

2) 연 령

연령별로는 노후생활지로서의 농촌선호와 거주지만족 2개의 종속변인에 대해 통계적인 유의차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특히 85세 이상의

노인을 제외한 계층에서는 연령이 높을수록 노후생활지로서 농촌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5% 유의수준에서의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다.

<표 6> 연령별 종속변인에 대한 F분석

	구 분	자승합(SS)	평균자승(MS)	자유도	F 값	유의도
노후생활지로서의 농촌선호	집단간	3.680	1.227	3	2.119	0.099
	집단내	131.971	0.579	228		
	전 체	135.651		231		
거주지 만족	집단간	16.397	5.466	3	1.293	0.278
	집단내	976.683	4.228	231		
	전 체	993.081		234		

3) 학 력

학력별로는 노후생활지로서의 농촌 선호도는 중졸 집단에서, 거주지만족은 고졸 집단의 평균이 가장 높았으나, 전체적으로 5% 수준에서 통

계적인 유의차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조사 대상자인 80% 이상이 초등학교 졸업 수준으로 유사한 학력을 가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표 7> 학력별 종속변인에 대한 F분석

	구 분	자승합(SS)	평균자승(MS)	자유도	F 값	유의도
노후생활지로서의 농촌선호	집단간	3.863	1.288	3	2.238	0.085
	집단내	132.376	0.576	230		
	전 체	136.239		233		
거주지 만족	집단간	17.974	5.991	3	1.420	0.238
	집단내	983.343	4.220	233		
	전 체	1001.316		236		

4) 동거가족 유형

동거가족 유형별로 살펴볼 때, 노후생활지로서의 농촌선호는 배우자와 거주하는 집단이 다

른 집단에 비해 그리고 거주지 만족은 혼자 거주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평균이 가장 높았으나, 두 개 종속 변인 모두 5% 수준에서의 통계적인 유의차는 없었다.

<표 8> 동거가족 유형별 종속변인에 대한 F분석

	구 분	자승합(SS)	평균자승(MS)	자유도	F 값	유의도
노후생활지로서의 농촌선호	집단간	1.578	0.526	3	0.893	0.445
	집단내	133.052	0.589	226		
	전 체	134.630		229		
거주지 만족	집단간	11.283	3.761	3	0.895	0.444
	집단내	962.271	4.202	229		
	전 체	973.554		232		

5) 지역사회 거주기간

현재 살고 있는 지역사회에서의 거주기간은 비록 61년 이상 집단, 16-30년 집단의 순으로 노후생활지로서의 농촌선호 및 거주지 만족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5% 수준에서 통계적인

유의차가 없었다. 연령과 지역사회 거주기간의 상관성이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볼 때, 이러한 결과는 연령별로 유의차가 없는 것과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표 9> 지역사회 거주기간별 종속변인에 대한 F분석

	구 분	자승합(SS)	평균자승(MS)	자유도	F 값	유의도
노후생활지로서의 농촌선호	집단간	2.967	0.742	4	1.275	0.281
	집단내	133.272	0.582	229		
	전 체	136.239		233		
거주지 만족	집단간	26.696	6.674	4	1.589	0.178
	집단내	974.620	4.201	232		
	전 체	1001.316		236		

6) 도시 생활 경험 여부 및 도시 거주기간

현재 살고 있는 지역사회에 거주하기 전에 도시에 거주한 경험여부는 노후 생활지로서의 농촌 선호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10>에서 보듯이, 도시생활 경험이 없는 집단이 경험이 있는 집단에 비해 선호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결과는 조사대상

자들의 도시생활 경험이 부정적 영향을 가졌을 것으로 유추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주지 만족에 대해서는 비록 도시생활 경험이 없는 집단이 만족이 다소 높았지만, 통계적인 유의차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 거주지에 대한 만족의 판단 근거를 도시와 비교하는 준거가 작용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표 10> 도시생활 경험여부별 종속변인에 대한 T 분석

	구 분	사례수	평 균	표준편차	자유도	t 값
노후생활지로서의 농촌선호	없 음	147	1.63	0.703	232	-2.009*
	있 음	87	1.84	0.847		
거주지만족	없 음	150	6.60	2.053	235	-0.571
	있 음	87	6.76	2.100		

P* < 0.05

한편, 도시생활 경험이 있는 응답자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노후생활지로서의 농촌선호는 1-15년 집단이, 거주만족은 16-30년 집단이 가장 높았으나 통계적인 유의차는 발견하지 못하였다.

7) 주관적 건강상태

응답자들이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건강상태에

따라 거주지 만족에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평균 차이를 볼 때, 거주지 만족은 보통-건강-건강하지 못한 편이라는 집단의 순으로 만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노후생활지로서의 농촌선호는 건강-보통-건강하지 못한 편의 집단의 순으로 평균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5% 수준에서의 통계적인 유의차는 발견하지 못하였다.

<표 11> 주관적 건강상태별 종속변인에 대한 F분석

	구 분	자승합(SS)	평균자승(MS)	자유도	F 값	유의도
노후생활지로서의 농촌선호	집단간	1.388	0.694	2	1.189	0.307
	집단내	134.852	0.584	231		
	전 체	136.239		233		
거주지 만족	집단간	43.403	21.702	2	5.301	0.006**
	집단내	957.913	4.094	234		
	전 체	1001.316		236		

8) 인간관계 우선성

현재 살아가는 과정에서 과업, 풍족함 또는 환경에 비해 사람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인간관계 우선성 변인은 두 개의 종속변이에 대해 모두 5% 수준에서의 유의차가 있었다. 그러나 두 개 종속변인 모두에 대해 인간관계 우선

성의 집단별로 이러한 유의차는 양극적인 현상을 보이고 있었다. 즉, 응답자를 대략적으로 인간중시-보통-과업, 풍족함, 환경 중시의 3개 집단으로 구분하였을 때, 양극에 있는 집단이 보통의 집단에 비해 노후생활지로서의 농촌 선호와 거주지 만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런 면에서 볼 때, 비록 통계적인 유의차는 있었지만, 실제 인간관계 우선성이 노후생활지로서의 농촌 선호와 거주지 만족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는지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분석이 요구된다.

<표 12> 인간관계 우선성별 종속변인에 대한 F분석

	구 분	자승합(SS)	평균자승(MS)	자유도	F 값	유의도
노후생활지로서의 농촌선호	집단간	8.913	1.486	2	2.648	0.017*
	집단내	127.326	0.561	227		
	전 체	136.239		229		
거주지 만족	집단간	111.444	18.574	6	4.850	0.000***
	집단내	873.083	3.829	228		
	전 체	984.528		234		

9) 지역사회에서의 사회적 관계 속성 변인
지역사회에서의 사회적 관계에 대한 요인분석을 통해 구명된 4개 독립변인은 노후 생활지로서의 농촌선호와 거주지 만족에 모두 유의차가 있었다 <표 13>. 즉, 개인적 자부심이 높을수록, 1차 집단과의 관계가 좋다고 판단할수록, 지역사회를 공동체로 인식하는 정도가 높을수

록, 타인과의 신뢰적 관계가 있다고 생각할수록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노후생활지로 농촌이 더 적당하고, 현재 살고 있는 지역사회에서의 거주만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기초할 때 개인들의 사회적 관계가 바람직할수록 지역사회에서의 거주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것으로 결론지을 수 있다.

<표 13> 개인적 자부심별 종속변인에 대한 F분석

독립변인	종속변인	구 분	자승합(SS)	평균자승(MS)	자유도	F 값	유의도
개인적 자부심	노후생활지로서의 농촌선호	집단간	21.868	1.215	18	2.280	0.003**
		집단내	112.432	0.533	211		
		전 체	134.300		229		
	거주지 만족	집단간	246.350	13.686	18	3.989	0.000***
		집단내	734.182	3.431	214		
		전 체	980.532		232		
1차 집단 관계	노후생활지로서의 농촌선호	집단간	23.473	1.565	15	3.025	0.000***
		집단내	112.261	0.517	217		
		전 체	135.734		232		
	거주지 만족	집단간	465.263	31.018	15	13.134	0.000***
		집단내	517.179	2.362	219		
		전 체	982.443		234		

공동체 인식	노후생활지로서의 농촌 선호	집단간	32.237	2.931	11	6.233	0.000***
		집단내	103.917	0.470	221		
		전 체	136.155		232		
타인과의 신뢰적 관계	노후생활지로서의 농촌 선호	집단간	519.645	47.240	11	22.067	0.000***
		집단내	481.672	2.141	225		
		전 체	1001.316		236		
타인과의 신뢰적 관계	노후생활지로서의 농촌 선호	집단간	16.436	2.739	6	5.191	0.000***
		집단내	119.803	0.528	227		
		전 체	136.239		233		
타인과의 신뢰적 관계	거주지 만족	집단간	179.227	29.871	6	8.377	0.000***
		집단내	816.582	3.566	229		
		전 체	995.805		235		

4. 종속변인에 대한 회귀분석

두 개의 종속변인에 대해 성별, 연령, 학력, 동거가족 유형, 주관적으로 인지한 건강상태, 지역사회 거부기간, 도시생활 경험 여부, 인간관계 우선성 그리고 지역사회에서의 사회적 관계 속성 변인을 투입하여 Stepwise 방식으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1) 거주지 만족

거주지 만족에 대해서는 <표 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동체 인식, 1차 집단 관계 및 연령 등 3개 독립변인이 약 55.2% 정도 설명력을 가지고 있었다. 연령은 거주지 만족과 부적 관계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공동체 인식의 설명력이 44.1%로 압도적으로 작용하고 있어 거주지 만족에 대한 주요 예언 변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14> 거주지 만족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R2 변화	기울기(B)	표준오차	표준화된 B(beta)	t값
상수(constant)		1.026	0.391		2.623**
공동체 인식	0.441	1.213	0.161	0.424	7.538***
1차 집단 관계	0.101	1.350	0.185	0.414	7.302***
연령	0.010	-0.253	0.112	-0.103	-2.255*
설명력 합계(R2)	0.552				

P* < 0.05, P** < 0.01, P*** < 0.001

한편, 노후생활지로서의 농촌 선호에 대해서는 <표 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동체 인식, 인간관계 우선성, 성별, 도시생활 경험여부 등 4개 변인이 약 26.4%의 설명력을 가지고 있다. 이 역시 공동체 인식이 16.4%의 설명력을 가지

고 있어, 거주지 만족과 더불어 노후생활지로서의 농촌 선호에 대한 주요 예언 변인은 공동체 인식 변인인 것으로 추정된다.

〈표 15〉 노후생활지로서의 농촌 선호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R2 변화	기울기(B)	표준오차	표준화된 B(beta)	t 값
상수(constant)		0.177	0.186		0.953
공동체 인식	0.164	0.318	0.069	0.292	4.578***
인간관계 우선성	0.041	0.224	0.070	0.203	3.195**
성 별	0.024	0.321	0.094	0.208	3.416***
도시생활 경험여부	0.036	0.314	0.096	0.197	3.259***
설명력 합계(R2)	0.264				

P* < 0.05, P** < 0.01, P*** < 0.001

※ 성별: 남 0 여 1 도시생활 경험 여부: 없음 0 있음 1

V. 요약 및 결론

이 연구는 농촌 노인들이 오랫동안 거주해 온 지역사회에서의 거주지 만족과 노후생활지로서의 농촌에 대한 인식과 관련변인을 찾는 목적으로 시도되었다. 경기도 지역 농촌지역 중 65세 이상 노인비율이 7% 이상 되는 12개 시·군에서 임의로 표집된 241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이 연구의 질문지는 일선 농촌지도사의 면접으로 수집되었다.

이 연구에서 사용된 거주지 만족은 3개 문항 점수의 합으로 측정되었는데, 측정도구의 신뢰도 계수는 0.804이었다. 그리고 단일 문항으로 측정된 노후생활지로서의 농촌 선호의 평균은 5점 척도에서 1.71 이었다. 한편 분석에 투입된 독립변인은 성별, 연령, 학력, 동거가족 유형, 지역사회 거주기간, 도시 생활 경험 여부, 도시 생활 거주기간,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건강상태와 3개 문항 점수의 합으로 구성된 인간관계 우선성 및 21개 지역사회에서의 사회적 관계 속성을 요인 분석하여 얻어진 개인적 자부심, 1차 집단과의 관계, 공동체 인식, 타인과의 신뢰적 관계 등 13개이다.

이 연구에서 나타난 주요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노후생활지로서의 농촌 선호는 성별, 도시

생활 경험여부, 인간관계 우선성, 개인적 자부심, 1차 집단과의 관계, 공동체 인식, 타인과의 신뢰적 관계 등 7개 독립변인이 통계적인 유의차가 있었다. 즉, 여자보다는 남자가, 도시생활 경험이 있는 집단이 없는 집단보다, 지역사회에서의 사회적 관계 속성을 우호적으로 인식하는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농촌이 도시보다 노후생활지로 더 적당하다고 보고 있었다. 그러나 인간관계 우선성은 보통의 집단이 양극에 있는 집단보다 농촌이 더 적당하다고 보고 있었다.

2) 거주지만족은 주관적 건강상태, 인간관계 우선성, 개인적 자부심, 1차 집단과의 관계, 공동체 인식, 타인과의 신뢰적 관계 등 6개 독립변인에 따라 유의차가 있었다. 즉, 자신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집단일수록, 지역사회에서의 사회적 관계 속성을 우호적으로 인식하는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현재 살고 있는 지역사회에서의 거주지 만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인간관계 우선성은 보통의 집단이 양극에 있는 집단보다 거주 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 연령, 학력, 동거가족 유형, 지역사회 거주기간, 도시생활 기간 등 5개 독립변인은 노후생활지로서의 농촌우선성 및 거주지 만족이라는 두 개의 종속변인과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4) 노후생활지로서의 농촌 선호를 설명하는 변인으로서의 공동체 인식, 인간관계 우선성, 성별, 도시생활 경험여부 등 4개 변인이 전체 변량의 약 26.4%를 설명하고 있었는데, 이 중 공동체 인식이 16.4%를 차지하고 있었다.

5) 거주지 만족을 설명하는 변인으로서의 공동체 인식, 1차 집단 관계, 연령 등 3개 변인이 전체 변량의 약 55.2%를 설명하고 있었는데, 이 중 공동체 인식이 44.1%를 설명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에 기초할 때 이 연구에서 내릴 수 있는 결론 및 추후 연구 설계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1) 농촌 노인들의 거주지 만족 및 노후생활지로서의 농촌 선호는 개인적 인구학적 변인보다는 지역사회에 대한 공동체 인식이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한다. 지역사회 성원과의 동일시라는 측면에서 농촌 지역사회의 공동체적 인식을 반영하는 「지역사회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잘 알고 있다.」, 「이 지역사회 사람들은 공동의 운명을 가지고 있다.」, 「나는 지역사회의 일원이라는 느낌이 든다.」는 3개 문항이 거주지 만족과 노후생활지로서의 농촌 선호에 대한 설명력이 크다는 것은 농촌 노인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거주하는 지역사회 삶에서 공통체적 유대감을 중시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이 연구와 다른 유사한 선행 연구와 차이를 보이는 결과는 동거가족의 유형이 농촌노인의 거주지 만족이나 생활만족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 하는 점이다. 이 연구에서는 상호 연관성이 있는 다른 삶의 질 또는 생활만족도 연구의 결과와는 달리 거주지 만족이나 농촌 선호에 대해 유의차이가 없었는데, 이것이 실제로 나타나는 현상인지 아니면, 동거가족이 농촌노인의 삶에 주는 영향을 지역사회 성원과의 유대감으로 대체 충족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보다 세밀한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3) 또한 이 연구에 사용된 「일이나 풍족함 또는 환경보다 사람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

는 인간관계 우선성이라는 개인적 특성이 비록 노후생활지로서의 농촌선호와 거주지 만족 두 개 종속변이에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지만, 집단별 평균에 있어서는 양극적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환언하면, 인간중심 그리고 일이나 풍족함, 환경 중심일수록 보통의 집단에 비해 선호 및 만족이 높게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결과는 통계적 유의상과는 관계없이 제대로 설명하기 어려운 현상이다. 따라서 개인의 인관관계 중심 또는 과업 중심적 특성과 거주지 만족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있어야 한다.

4) 마지막으로 이 연구는 경기도 지역의 70세 이상의 농촌 노인만을 대상으로 연구하였으며, 노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사회의 자연환경이나 산업 구조적 특성, 그리고 경제적 수준은 고려하지 않았다. 따라서 농촌노인들의 거주지 만족을 탐구하는 추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변인들을 고려한 연구가 뒤 따라야 할 것으로 본다.

VI. 참고문헌

- 고순철. (1992). 제주도 농촌주민의 지역사회 만족도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공은숙. (1988). 한국 일부 농촌지역 노인의 생활기능상태 결정요인의 구조적 관계연구. 한국학술진흥재단, KRF연구결과논문, 1-12.
- 김동일, 심재웅, 경철인. (1982). 한국농촌 주민의 삶의 질-사회지표 구성을 위한 종합적 접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총서, 8
- 김기태, 주수길, 박봉길. (1996). 동일 성씨 농촌 지역 노인과 일반 농촌지역 노인의 생활만족도 비교. 부산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사회복지연구, 6(1), 87-102.
- 김득희, 황경열. (1998). 농촌과 도시 노인의 자아존중감, 생활만족도, 건강상태간의 관계 연구. 특수교육연구, 21, 95-126.
- 김정아, 김금이. (1997). 일 농촌지역 노인의 삶

- 의 만족도에 관한 조사. **세명대학교 세명논총**, 6, 339-354.
- 김종인. (2002). 백살 이상 장수노인의 저주지역에 대한 사회환경요인. **한국노년학**, 21, 157-168.
- 김해동. (1976). 한국농촌 생활지수 연구-새마을 운동의 임팩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논총**, 14(2), 21-34.
- 박광희, 한혜경. (2002). 농촌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노년학연구**, 11, 43-61.
- 박성복. (1997). 노인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노인교육 및 삶의 질. **한국지역개발학회지**, 9(2), 101-111.
- 배진희. (2004). 농촌지역 노인의 사회적 지지와 생활만족도-자녀와 이웃지원의 기능적 측면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20, 197-216.
- 송명국. (1987). **농촌성인의 생활만족도와 관련변인**. 서울대 학교 석사학위 논문
- 양순미, 홍숙자. (2003). 농촌노인의 독거, 동거 가구형태가 심리적 고독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1(6), 129-139.
- 양점도, 김춘택. (2004). 농촌 노인의 욕구 분석을 통한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복지행정 학회. 복지행정논총**, 14(1), 25-46.
- 이정화 등. (2003). 사회적 환경으로서의 지원망 특성이 농촌노인의 심리적 복지에 미치는 영향. **농촌계획**, 9(3), 1-8.
- 이형실. (1999). 농촌노인의 사회적 지원과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생활과학 연구소. **생활과학논집**, 12(1), 33-49.
- 조성일. (1984). **농촌주민의 주관적 복지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최경구. (1978). **한국농촌주민의 주관적 복지에 관한 일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최은숙. (1974). 농가의 사회경제적 지위척도 구성에 관한 연구. **한국농업교육학회지**, 6(1), 45-78.
- 최은영, 김지영, 김혜숙. (2003). 노인의 건강증진행위, 생활만족도 및 가족지지와의 관계연구. **노인간호학회지**, 5(1), 7-16.
- 한경혜, 윤순덕. (2001). 자녀와의 동, 별거가 농촌노인의 심리적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년학**, 21(2), 163-178.
- 한경혜, 최은숙. (1979). 농가의 “생활의 질” 측정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농업교육학회지**, 11(2), 32-45.
- 한정란, 김수현. (2004). 농촌 남녀노인의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자아존중감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노인복지연구**, 26, 91-118.
- Allen, C. J., Vogt R., & Ko, S. C. (2001). Relationships Between Community Attributes and Residential Preference in Nonmetropolitan Nebraska, *Great Plains Research*, 11(Fall), 327-346.
- Chamberlain, K. (1988). On the Structure of Subjective Well-Being, *Social Indicators Research*, Vol. 20(6), 581-604.
- Davies, Vernon(1945), Development of a Scale to Rate Attitude of Community Satisfaction, *Rural Sociology*, Vol. 10(Sep.), 246-255.
- Deseran, Forrest A.(1978), Community Satisfaction as Difinition of the Situation: Some Conceptual Issues, *Rural Sociology*, Vol. 43(2), 235-249.
- Fellin, Phillip(1987), *The Community and the Social Worker*, F.E.Peacock Publishers, Inc.
- Goudy, Williams J.(1977), Evaluation of Local Attributes and Community Satisfaction in Small Town, *Rural Sociology*, Vol. 42(3), 371-382.
- Jesser, Clinton(1963), Community Satisfaction patterns of professionals in rural areas, *Rural Sociology*, Vol. 32(March), 544-548.

- Johnson, Ronald L. and Edward Knop(1970), Rural-Urban Differentials in Community Satisfaction, *Rural Sociology*, Vol 35(4), 544-548.
- Ladewig, Howard and Glem C. McCann(1980), Community Satisfaction: Theory and Measurement, *Rural Sociology*, Vol. 45(1), 110-131.
- MacRae, Duncan, Jr.(1985), Policy Indicators: Links Between Social Service and Public Debate, The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 Marans, Robert W. and Willard Rodgers(1975), Towards an understanding of community satisfaction, in A. Hawley and V. Rock (eds.), *Metropolitan America: papers on the states knowledge*, Washington, D.C.,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 Miller, Michael K. and Kelly W. Crader(1979), Rural-Urban Differences in Two Dimensions of Community Satisfaction, *Rural Sociology*, Vol. 44(3), 489-504.
- Miles, Iam(1985), *Social Indicators for Human Development*, Frances Pinter(publishers), London
- Molnar, Joshep J., Sally Purohit, Howard A. Clonts, and V. Wilson Lee(1979), A Longitudinal Analysis of Satisfaction with Selected Community Services in a Nonmetropolitan Area, *Rural Sociology*, Vol. 44(2), 401-419.
- Rogers, Davis L.(1982), Community Services, in Don A. Dillman and Daryl J. Hobbs (ed.), *Rural Society in the U.S.: Issues for the 1980s*, Westview Press
- Rojek, Dean G. Frank Clemente, and Gene F. Summers(1975), Community Satisfaction: A Study of Contentment with Local Services, *Rural Sociology*, Vol. 40(2), 177-192.
- Rossi, Peter H.(1972), Community Social Indicators, in Angus Campbell and Philip E. Converse (ed.), *The Human Meaning of Social Change*, Russell Sage Foundation (N.Y.)
- Rubin, Herbert J. and Irene Rubin(1986), *Community Organizing and Development*, Merrill Publishing Company
- Schneider, Mark(1976), The Quality of Life and Social Indicators Research,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Vol. 36(3), 297-305.
- Schultze, Rolf, Jay Artis and J. Allan Beegle (1963), The Measurement of Community Satisfaction and the Decision to Migrate, *Rural Sociology*, Vol. 28 (Sep.), 279-283.
- Warner, Paul D. and Rabel J. Burdige(1979), Perceived Adequacy of Community Services: A Metro-Nonmetro Comparison, *Rural Sociology*, Vol. 44(2), 392-400.

(2006년 5월 4일 접수, 심사후 수정보완)